

# 남북간 통행 시간대 대폭 축소

## 北, 경의선 하루 3차례·동해선 주 1차례로 제한

### “금강산 상주 인원도 절반으로 줄여라” 통보

북한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남북 육로통행 제한·차단 조치(12·1 조치)의 하나로 통행 인원 제한을 예고한데 이어 통행 가능한 시간대까지 대폭 축소하겠다고 27일 통보했다.

통일부는 “북측은 현재 하루 12차례 출경(방북)하고 7차례 입경(북귀)하던 경의선(서해지구) 육로 출입을 각각 하루 3차례 하도록 하고 하루 2차례씩 출·입경을 허용하던 동해선(동해지구) 출입을 각각 한 주에 1차례씩 허용키로 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경의선의 경우 매일(일요일 및 북측 국가 명절 제외) 출경은 오전 9, 10, 11시, 입경은 오후 3, 4, 5시에만 가능하게 되고, 동해선의 경우 출경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입경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만 허용된다.

북측은 또 현재 매번 통행 시간대마다 출입인원 500명, 차량 200대 이하로 다니게 하던 것을 각각 250명, 150대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경의선 육로를 통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생산품 및 원자재 반출입 등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동해선의 경우 방북자가 방북 당일 오후에 북귀하거나 한 주 이상 지난 뒤 북귀할 수밖에 없게 돼 금강산 지구에서의 각종 인적 교류·협력 사업들은 진행되기 어렵게 됐다.

아울러 북한은 12월 1일 이후 금강산 지구의 남북 상주 인원 및 차량을 각 100명(현재 200명 가량 체류), 150대 미만으로 제한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통일부는 이에 주 5일(월~금) 이뤄져 온 문산-봉동 구간 경의선 철도

운행과 관련, 금요일인 28일 마지막 운행 하기로 했고 개성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 역시 28일까지만 관광을 진행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북측에 제차 대화를 제의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국회 의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상품전시 및 판매전’ 축사를 통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신에 따라 남과 북의 당국자들이 만나서 금번 조치(12·1조치)에 대해 협의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측은 12월 1일 이후 상주할 수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지원업체, 관리위원회 등의 직원 명단을 금명간 우리 측에 통보해줄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위원회는 전날 개성체류인원 4천여명 중 2천여명이 잔류하고, 나머지 2천명 정도는 철수하겠다고 북측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27일(현지 시각) 인도 금융·경제 중심지인 뭄바이 시내에서 테러범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동시다발 총격이 발생했다. 한 기자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티지 호텔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뭄바이 테러 사망자 101명으로 늘어

## 280여명 부상...한국인 전원 탈출 호텔 등 3곳서 인질 잡고 대치중

인도 경제·금융 중심지인 뭄바이의 번화가에서 26일 밤 총격투와 수류탄 등을 동원한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해 외국인 6명을 포함해 최소한 101명이 숨지고 290명 가량 부상을 당했다. 특히 이날 테러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돼 주요 호텔과 철도역, 병원, 레스토랑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10곳을 대상으로 동시에 이뤄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사관 인사와 기업인을 포함한 한국인 26명도 테러의 목표물 이 된 한 호텔에서 갇혀 있다가 수시간 만에 무사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 테러 발생=인도 경찰에 따르면 26일 밤 10시30분(이하 현지시간)께 뭄바이 남부에 위치한 차트라라파티 사마지 철도역 대합실에 여러 명의 괴한이 난입해 AK-47 소총을 난사하고 수류탄을 투척했다. 동시에 뭄바이 최대 번화가인 콜라바-나리나드 포인트 지구의 고급 호텔들인 타지 마할과 오베로이 트리아던트에서도 총성과 폭발음이 들렸다. 또 마즈가온 지하철 역사, 크로퍼드 시장, 카마 병원, 외국인 관광객의 명소인 ‘카페 레오폴드’ 등에서도 동시다발의 테러가 이어졌다. ▲ 대처 상황=테러범들은 27일 오

전 8시 현재 호텔 두 곳과 오피스텔 한 곳 등 3곳에서 군경과 대치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간헐적으로 교전이 발생하고 있다. 105년 역사의 타지 마할 호텔에서는 최소한 2명 이상의 무장세력이 10여명을, 오베로이 호텔에서는 최소 6명을 각각 인질로 붙잡고 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 인명 피해=이번 테러로 지금까지 최소 101명이 숨지고 287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마하라슈트라 주 내무부 고위관리가 밝혔다. 그러나 현지 ‘타임스 오브 인디아’ 인터넷판은 앞서 부상자가 900명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중상자가 많고 인질극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사망자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인 탈출=뭄바이 한국총영사관의 김동연 총영사를 비롯한 한국인 26명은 테러범들의 목표 중 하나였던 타지 마할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 갇혔으나 테러 발생 4시간30분만에 전원 무사히 탈출했다. ▲ 테러 배후=신승 이슬람 무장단체인 ‘데칸 무자헤딘(Deccan Mujahideen)’은 테러 직후 주요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내 자신들이 이번 테러의 배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그동안 단 한번도 테러의 배후를 자처하거나 용의선상에 오른 적이 없다. 오베로이 호텔 안에 있는 테러범 중 한 명은 인도 TV 방송과 전화통화에서 자신은 데칸 무자헤딘 소속이라며 인도 무슬림들의 박해를 중단하고 동료 조직원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 피지서 한국인 4명 교통사고 사망

## 7명 탄 승합차 추락...3명은 중태

피지의 한 공원에서 신혼여행 중이던 부부와 가이드 등 7명의 한국인이 타고 있던 승합차가 추락, 4명이 숨지고 3명 다쳤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27일 오전 11시경(현지시간) 피지 남서지역의 나우조리 하일랜드공원에서 신혼부부 3쌍을 태우고 가이드 조 모재가 몰던 승합 차량이 추락, 조씨와 신혼부부인 이모·김모씨, 다른 신혼부부중 아내인 김모씨 등 4명이 사망했다.

또 김씨의 남편 김모씨와 또 다른 신혼부부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다.

이들 여행객 가운데 부부 2쌍은 하나투어가 운영하는 패키지 상품을 이용했으며 나머지 부부는 다른 여행사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투어 측은 한국 내 피해자 가족을 데리고 현지로 가서 사고를 수습할 계획이다. 하나투어 측은 “승합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우리 여행 상품에 이용객 4명 가운데 2명은 숨졌고 2명은 크게 다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단 현지로 가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군 병력 방콕으로 이동” 태국 쿠데타설 확산

태국 정부와 반정부 단체가 각각 의회와 시위대 해산을 요구한 군부의 제의를 거부하자 조만간 쿠데타가 발생할 것이라는 소문이 수도인 방콕 일대에 확산되고 있다. 태국 현지 TV 방송국인 ‘채널 3’은 27일 오후 치앙마이에서 열리고 있는 각료회의 소식을 전하던 중 긴급 속보를 통해 군 병력이 방콕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도 쿠데타 소문에 따라 전직원에 대해 대기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www.hanbitgosi.co.kr

공무원 합격의 대세 9급 이론출수반

한빛고시학원

개강 12월 1일

공무원합격 압도적 1위

한짱단과반

광주 전남대 후문 복구청약 (062)234-0234

www.hanbitgosi.co.kr

공무원 합격의 대세 9급 이론출수반

한빛고시학원

개강 12월 1일

공무원합격 압도적 1위

한짱단과반

광주 전남대 후문 복구청약 (062)234-0234

www.dongbugosi.co.kr

공무원 합격의 대세 9급 이론출수반

한빛고시학원

개강 12월 1일

공무원합격 압도적 1위

한짱단과반

광주 전남대 후문 복구청약 (062)234-0234

www.dongbugosi.co.kr

공무원 합격의 대세 9급 이론출수반

한빛고시학원

개강 12월 1일

공무원합격 압도적 1위

한짱단과반

광주 전남대 후문 복구청약 (062)234-0234

www.dongbugosi.co.kr

공무원 합격의 대세 9급 이론출수반

한빛고시학원

개강 12월 1일

공무원합격 압도적 1위

한짱단과반

광주 전남대 후문 복구청약 (062)234-0234